

# 서론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현대무기의 기술적 진보를 알리는 분수령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된 무기들이 주요 전쟁에 사용된 것은 사상 초유였는데, 기관총 및 장거리포가 등장하였고, 지뢰가 설치되었으며, 장갑차, 전함, 심지어 어뢰 발사 가능 잠수함이 등장하였고, 전투기 공중폭격이 있었다.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듯 화학무기인 겨자가스(독가스)도 살포되었다. 4년의 전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상자는 5,500명을 기록했고, 전쟁 종료 당시 사망자는 총 1,000만 명, 부상자 및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수는 3,000만 명에 육박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다. 인류는 대량 파괴가 가능한 기술적 도구를 얻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었고, 심지어 무고한 시민 학살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핵무기의 등장으로 핵 시대가 도래하였고, 문명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핵무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버렸다.

2차 세계대전 후 수십년 동안 지속된 세계 열강 국가간의 냉전은 지구촌 여러 곳에서 대리전으로 확산되었다. 세계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소련은 독립 혹은 이념적 이유로 전쟁을 벌인 여타 국가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수 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90년 냉전 종식 후, 전쟁의 빈도는 줄었고 전쟁의 성격도 바뀌었다. 국가 간 전쟁(서로 다른 국가의 병사들 간의 전쟁)은 대부분 정치 경제적 목적을 가진 무장세력들이 벌이는 인종 및 종교 분쟁으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분쟁에서는 소형무기와 경화기가 대부분 사용되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주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냉전시대 동안

과잉 축적되었던 무기고에서 흘러나온 경우가 대다수였다.

오늘날 전 세계 정부들의 연간 군비지출은 미화 1조 5,00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최고 수준으로, 세계 인구 1인당 약 250달러씩을 감당해야 하는 규모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가 군비로 지출되는 반면, 개발 원조에 지출되는 비용은 이의 1/8인 0.3%에 불과하다.

냉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핵전쟁의 지속적인 위협에서 벗어나 성장하였다. 1991년 약 60,000개였던 핵탄두 중 17,000개가 오늘날 남아있다. 두 열강이 전면전에 돌입할 위험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회를 흔적도 없이 파괴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위력 및 핵무기의 오용, 분실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는 핵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핵무기 존재 자체에 있다.

지금의 실제적인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군축을 위한 행동’의 목적은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대화를 촉구하고, 이들에게 군축과 비확산과 관련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군축이 전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메시지 전달에 목적을 둔다.

모든 이들이(특히 청년층)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핵무기 폐지에서부터 총기 폭력 제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군축과 비확산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결정하기 이전에 무기 개발사와 확산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다양한 무기 종류를 알아야 한다.



브룬디에서 진행된  
‘군축, 동원해제, 복귀 및 재통합  
(Disarmament,  
Demobilization,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프로세스의 공식적인 시작  
행사에서 무기가 소각되고 있다.